

선관위 “‘비례○○당’ 명칭 사용 안된다”

전체회의 열고 위성정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 “허용시 국민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결과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정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 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정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정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정당과의 오

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고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결정 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장준비위원회’는 정당법 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정기 브리핑

박지원, 내일 목포서 ‘고마워~’ 출판기념회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 목표발전과 가족 등의 이야기를 담은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목포)의 출판기념회가 목포에서 열린다.

박 의원은 15일 오후 3시 목포고등학교 인동관에서 ‘고마워: 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 출판기념회를 연다.

박 의원은 “지난해 아내를 그리는 책을 냈는데 언론은 물론 부부, 특히 여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목포에서도 이 책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많은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출판기념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내가 떠나기 3주 전 의식이 있을 때 내 손을 잡고 당부한 말을 지금도 새기고 있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목표발전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선, 출판기념회 7천여명 운집 눈길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남)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광주 조선태해오름관에서 ‘공감’ 북 토크(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동철·김관영·김경진·손금주·이용호 의원과 임택 동구청장, 각계각층 주요 인사 등 7,000여명이 운집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는 관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이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일의 어려운 길을 선택해 왔으며, 개인적 불이익이 있어도 희생해오신 대인배의 면모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이날 박 의원은 북토크를 통해 유년 시절 검사의 꿈을 정한 계기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 수석합격 후기,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 4번 구속 4번 무죄를 위해 동서회합과 국민통합, 평화통

서삼석, 물부족 도서지역 지원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농어촌 용수부족 등 가뭄피해가 큰 도서지역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서지역 용수공급의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도서지역 등 농어촌 용수공급 부족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도서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운동 활성화 소음 규제 기준 없는 것 위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중 활성화 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주민 A씨가 “선거운동 시 소음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위헌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중지시키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헌법에 어긋남을 선언하되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한자리에 모인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 /연합뉴스

여, 이낙연 복귀 앞두고 총선 준비 ‘박차’

내일부터 공약 발표...청년 주거·일자리 방점

4·15 총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와 함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할 공약들 역시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총선에 도전할 청와대 인사들의

거취 정리가 열추 마무리되면서 당의 지역구 ‘말 놓기’ 전략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 총리의 복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잠룡’인 이 총리의 브랜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다.

일단이 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선거를 ‘지원사격’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대위는 이날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5일부터 총선 공약을 순차 발표한다.

청년을 겨냥한 공약들이 시리즈발표의 초반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맞춤형 일자리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한 ‘청년 타운’ 조성 등이 공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공천관리위 구성 완료

윤호중 등 18명 명단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4·15 총선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관위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우선 당내 인사로는 부위원장인 윤호중 사무총장·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전혜숙 의원, 박해철 전 국동농위원장, 전웅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신명 전 의원이 포함됐다. 지난 6일

발표한 원혜영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당내 인사는 총 8명이다.

외부 인사로는 조병래 전 동아일보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심재명 명필름 대표, 변호사인 이혜정·원민경씨, 치과의사인 이현정씨, 프로그래머인 이다혜씨, 총선거획단 위원으로 활동한 황희두씨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 중 여성은 9명, 청년은 4명이다.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